

# 2년 논란 완도 고금면 돈사 건립 갈등 극적 해결



신우철(왼쪽) 완도군수가 지난 25일 고금면 돈사 건립 사업자인 우명석 대표와 면담을 통해 돈사 건립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완도군 제공>

## 신우철 군수 현장소통 약속 사업자 설득 포기 이끌어내

2년여 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완도군 고금면 돈사 건립 문제가 신우철 완도군수의 현장소통행정으로 극적 타결됐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 군수는 최근 고금면 돈사 건립 사업자인 우명석 대표와 면담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 군수가 지난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과정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신 군수는 당시 "지난 2018년부터 고금면 돈사

건립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깊었다"며 "군수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군수는 곧바로 우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고향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 포기를 이끌어내 2년여 돈사 건립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완도군은 지난 3월 돈사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동안 사정 변경에 의한 건축허가 재취소와 협상을 통한 해결 등 2가지 방안을 진행해 왔다. 돈사건립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은 소송이 장기화되자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 대표는 "2~3년 전부터 고향에 양돈교육장을

만들어 양돈 농가에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후학 양성도 하고 싶었으나 고향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돈사 건립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음에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사업 포기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사업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돈사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주민들도 끝까지 군수를 믿어줘 고맙다"고 덧붙였다. 돈사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금면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70여개 돈사 반대 현수막을 철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소방서, 전통시장 8곳 '보이는 소화기' 193대 정비

목포소방서는 지난 25일 전통시장 8개소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193대를 정비했다. <사진> 보이는 소화기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를 쉽게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점검은 소화기 외관점검 및 사용가능 여부, 소화기 위치 표지 부착, 소화기 주변 불건적 여부 등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 발생 시에 잘 띄게 만든 보이는 소화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해남에 '닭코스 음식거리' 조성한다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공모 사업 선정 2년간 도비 5억원 등 총 10억원 투입 연동리 닭·오리 요리촌 후보지 선정

해남 대표 먹거리인 닭코스 요리를 주제로 한 '남도음식거리'가 조성된다. 해남군은 전남도 주관 '2020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해남식 닭코스 음식거리'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음식을 대표하고 단일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이 6개 이상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음식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음식거리 인프라 구축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마케팅 등에 2년간 도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해남식 닭코스 음식은 닭을 이용해 육회와 불고기, 구이, 보양백숙, 닭죽까지 5가지 요리를 차례로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다.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전문점들이 닭·오리 요리촌 단지를 이루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요리법이 유명해지면서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잡았다. 인근에 고산순도유적지와 천년고찰 대흥사가 있고, 해남 미남축제와 두문산권 복합레저파크, 대흥사권 휴먼밸리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 해남군은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닭요리촌을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고 경영마인드 향상교육, 1대1 컨설팅 등을 통해 메뉴 개발을 시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상가 자체적으로도 구구데이 닭 시식회, 신년 떡국봉사, 거리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깨끗한 닭요리촌, 다정한 닭요리촌, 재밌는 닭요리촌 조성을 목표로 해남 전체의 관광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음식거리 협의회와 협력해 해남식 닭 코스 요리의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닭요리를 특화한 '닭코스 음식거리'를 조성한다. <해남군 제공>



진도군 의신면 신선해농원에서 '작약꽃과 함께하는 힐링파티'가 열렸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도시 소비자 초청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의신면 칠전리 신선해농원서 작약꽃밭 체험·숲속 가야금 연주

진도군이 최근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를 열었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팜파티는 '작약꽃과 함께하는 힐링파티'를 주제로 의신면 칠전리 신선해농원에서 열렸다. 1ha에 달하는 작약꽃밭 체험, 작약꽃다발 만들기, 숲속 가야금 연주, 건강 발상 등이 진행됐다. 신선해농원은 청정 진도의 산골짜기에서 고구마·미니밤호박·약용작물을 자연순환농법으로 재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허브에쉬'라는 브랜드

로 석류즙액상차, 고지메리(구기자)액상차, 구기자호박액상차, 약용작물로 만든 수제볶음차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디어스(www.idus.com)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팜파티에 참가한 한 소비자는 "이렇게 청정한 곳에서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신뢰가 간다"며 "오늘은 팜파티를 즐기고 내일과 모레는 농산물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신선해농원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고객을 초청하지 못해 아쉽다"며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해남군, 읍사무소 앞 등 111곳 방범CCTV 338대 추가 설치

해남군은 취약지역에 군비 9억3000만원을 들여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CCTV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남부순환로 해남읍사무소 앞을 비롯해 금강산 등산로 중 팔각정 입구,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지역 등 111개소에 338대를 설치한다. 해남군은 현재 생활방범·어린이보호구역 등 231개소, 452대를 비롯해 초등학교 21개소, 183대 등 총 635대의 CCTV카메라가 설치돼 해남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관제를 하는 한편 저장된 영상은 범죄 수사와 접촉사고, 뺑소니, 가출인 찾기 등에 제공하고 있다. 관제를 통해 금연구역인 공원에 흡연자 발견 시 방송 장치를 사용해 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의심 차량, 범죄 관련 발견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해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 해남군은 하반기에도 국비를 확보해 하천범람, 대설, 풍랑, 해일,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예방 지역 75개소에 23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CCTV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면 범죄로부터 주민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Modern!

클래식스타일

Classic!

지중해스타일

Mediterranean Sea!